

코스피	2642.36	코스닥	862.96
	(-9.93)		(-0.43)
금리	3.385	환율	1331.50
	(+0.026)		(-2.10)

예금금리 하락에 투자처 못 찾은 대기자금 증가 04

3.6% 4.0%

선거판 뒤집는 ‘딥페이크’... 세계 정부·기업 대응 고심

(딥러닝+페이크)

딥페이크 활용 허위정보 확산세 선거 앞둔 72개국 정치권 비상

구글·메타 등 20여 빅테크 기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차단에 합의 국내서도 워터마크 부착 등 논의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합성 딥페이크 영상. /뉴시스

72개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허위 선거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 이에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AI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3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딥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최소 16개 국가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정보가 확산됐다. 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음성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렵다.

◆딥페이크 영상에 선거판 뒤집히

이 때문에 정치권은 딥페이크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딥페이크가

만든 가짜뉴스 잡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NBC 방송이 공개한 28초 분량의 전화 음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What a bunch of malarkey)”라는 문구를 활용하고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삽입한 조작 콘텐츠를 확산해 다수를 속였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확산됐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전 트위터)에는 기시다 총리가 포르

노물 대사를 읊는 등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30초짜리 영상이 유통됐다. 조작 영상이지만, 게재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99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집계한 결과 129건에 달했다.

실제 최근 틱톡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다.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였

던 2022년 2월 TV조선 제20대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짜집기한 조작된 영상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고 방심위는 긴급소위를 열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문제는 완성도가 높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튀르키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선거판이 뒤집혔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이 야당 연합의 케말 클르차다를후 후보를 지지하는 조작된 영상이 확산했다. 가짜 영상이란 사실이 밝혀졌지만 선거는 끝난 이후였고 결국 해당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딥페이크 차단 합심에도 ‘역부족’

전 세계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딥페이크 영상 차단에 팔을 걷어부쳤다.

최근 오픈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 20개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를 감지해 꼬리표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아침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엔터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④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2면에 계속)



4만여명 의사·의대생 거리에... 병원 의료공백 커진다

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여의도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공의 이어 전임의도 사직 준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올랐다. 정부가 집단 사직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앞둔 가운데, 의사와 의대생들 4만여명이 거리로 나서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면)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들마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병원 떠난 의사들,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시작했다. 의협은 앞서 이번 쟁기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주최측 추산 4만여명의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이 자리 모여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

한 모든 의사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

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 총리 “국민생명 불모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 ▲ 친명 지도부 모두 본선행... 임종석·홍영표 어디로? (사진 뉴시스)

- ▲ 이상민 “전공의 3일까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
- ▲ 이재명·원희룡, ‘명룡대전’ 확정 후 격전지서 조우



- ▲ ‘민주 탈당’ 김영주, 4일 국민의힘 입당
- ▲ 이준석, 한동훈에 “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사진 뉴시스)